이순신 '파죽지세'

영화 '명량' 역대 최대관객 '눈 앞'
해남 울돌목, 관광객 하루 600명
우수영 '명량대첩 전시관' 2016년 개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의 돌풍이 거세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1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순신' 관련 서적 매출액이 상승하는 등 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명량해전의 현장인 해남 울돌목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며 2016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중인 '명량대첩 기념 전시관'도 눈길을 끈다.

'명량' 투자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10일 "이날 오전 '명량'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1000만 돌파는 개봉한 지 12일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 1000만 영화인 '괴물'보다 9일이나 앞선 기록이다. 지난 30일 개봉한 '명량'은 첫날부터 68만명을 동원하며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후 한국 영화 흥행사를 계속 새로 써왔다. '명량'의 흥행에는 영화 주 소비층인 20~30대와 함께 40~50대의 적극적인 관람이 큰 영향을 미쳤다. CGV에 따르면 '명량'의 경우 20~30대 관객 비율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 관객도 37.5%나 됐다.

영화계에서는 '명량'이 국내 최고 흥행작인 괴물의 1301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국내 영화 최초로 관객 1500만명, 매출 1억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광복절 연휴가 끼어 있는데다, 라이벌 작품으로 꼽혔던 '해적 : 바다로 간 산적' 개봉 후에도 평일 70만, 주말 100만명 안팎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올 여름 '한국 영화 빅 4'로 꼽힌 '해무'가 13일 개봉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 관객 동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 영화 최고 매출액은 도둑들(1298만명)의 965억원이다. 외국 영화까지 포함할 경우 '아바타'가 최다 관객(1326만명), 최고 매출(1284억원) 기록을 갖고 있다.

'명량'에서 시작된 이순신 열풍은 서점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순신 관련 서적은 약 150종에 이르고, 판매량은 지난해 1102권에서 올해 7월까지 1705권으로 지난해보다 약 54% 늘었다.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2005)의 원작인 소설가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민음사 전8권), 김훈의 '칼의 노래' 등 기존작들과 함께 김호경의 '명량'(21세기 북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일상 이상), '불패의 리더, 이순신'(하늘재) 등 신작과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전 2권·시루) 등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쏟아지고 있다.

명량해전의 현장인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군 군내면 사이 울돌목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울돌목 바로 위 우수영 유적지 입장객이 크게 늘었다. 영화 개봉 전까지는 하루 수십명에 그쳤지만 개봉 날인 30일에는 230명이 다녀갔으며 지난 1일에는 848명이 방문하는 등 하루 평균 500~600명이 우수영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관람객 감소로 출항하지 않았던 울돌목 거북배도 5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세차례 운항중이다.

우수영에 짓고 있는 '명량대첩 기념 전시관'도 눈길을 끈다.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된 '명량대첩 기념 전시관'은 문내면 학동리 우수영 관광지 일대 부지 7716㎡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16년초 개관 예정이다. 전시관은 웰컴존, 명량대첩 필승요인 탐구관, 4D영상관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는 시대별 함선과 무기 전시, 세계 속의 명량대첩, 난중일기 등이 그래픽 패널로 전시되며 특히 명량대첩 필승요인 탐구실에는 빔 프로젝터와 유속체험세트, 판옥선 등을 선보인다.

해남군 관계자는 "오는 10월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화 '명량'도 축제 기간 중 야외공연장에서 상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16일 교황 방한때 입을 제의 공개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에서 교황이 입을 제의의 앞과 뒤. 순교와 피, 성령을 뜻하는 홍색이다. 교황 방한 기념 로고와 성작(미사에서 포도주를 성혈로 축성할 때 사용하는 잔), 칼을 형상화했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

체험·봉사의 場 각광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헌 옷 전달·마을 방역 등 가족과 봉사활동 하며 소통의 시간

"가족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여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나눔과 연대, 대동의 '광주 정신'을 동남아시아에 전파하기 위해 건립된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Gwangju Clinic)가 앞으로 광주시민들의 '체험 교육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캄퐁스퓨 주(州)의 '광주진료소'(Gwangju Clinic)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과 연대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주관 단체인 (사)희망나무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가족 힐링캠프'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희망나무 회원인 네 가족 14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사)희망나무 측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만큼 광주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해외봉사 체험은 물론 가족간의 '소통'과 '힐링'을 돕자는 취지에서 회원 가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네 가족 이외에도 광주시의회 김보현·조오섭 의원과 유재신 광주시 약사회장도 함께했으며,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초대 소장을 맡고 있는 전 광주시의원인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이 진료활동을 했다. 이들은 30도를 웃도는 뙤약볕 속에서 1박2일 동안 진료소 내·외부 청소와 인근 마을 방역활동을 진행했으며, 환자 체온 측정 등의 진료지원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이번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각 가정에서 입지 않는 헌 옷 200여점을 직접 가져와 현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부모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피아여고 1학년 최한진(17)양은 같은 반 학생들이 모아준 헌 옷 100여점을 가져와 현지 청소년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해 광주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광주진료소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양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집에서 입지 못하는 헌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친구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 금새 100여점의 옷을 모을 수 있었다"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참여한 윤지영(39·남구 진월동)씨는 "애들만 보내는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은 안전 등이 걱정되고 했는데, 부모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다 싶어 동참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그동안 부족했던 대화도 많이 했고, 땀을 흘리면서 함께 나눔의 기쁨을 맛볼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사)희망나무 측은 앞으로 광주일보와 함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가족들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서 봉사활동과 여행을 함께 하면서 가족들 간의 '소통'의 폭을 넓혀줄 '캄보디아 가족 힐링캠프'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희망나무 정승욱 대표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의 참여로 지어진 만큼 앞으로 많은 광주시민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특히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

지난 2일 캄보디아 캄퐁스퓨주(州)의 광주진료소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광주 수피아여고 1학년 최한진양이 진료를 받으러온 현지 주민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휘발유 값, 3년來 최저

광주 ℓ당 평균 1831.1원…경유 값 21주 연속 하락

광주의 휘발유 값이 ℓ당 평균 1831.1원을 기록하는 등 휘발유 값이 3년 만(2011년 1월 1825.4원)에 최저가를 나타냈다. 휘발유 값은 5주째, 경유 값은 21주째 연속 내렸다.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4원 떨어진 ℓ당 평균 1850.0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4.4원 내린 평균 1652.1원에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등유도 0.6원 하락한 1311.8원에 평균 가격을 형성했다.

지역별로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서울(1943.4원)이 가장 비쌌고, 제주(1877.0원), 경기(1858.4원), 강원(1857.3원), 충남(1857.0원) 순이었다. 대구(1820.4원), 울산(1827.6원), 경북(1830.3원), 경남(1837.1원), 대전·전북(1838.0원) 등은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싼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841.6원으로 부산·충북과 함께 1840원대 초반을 기록했다.

주유소별로는 SK에너지가 평균 1868.4원으로 가장 비쌌고, GS칼텍스(1858.2원), 에쓰오일(S-OIL)(1839.9원), 현대오일뱅크(1836.1원) 순으로 값이 내려갔다. 알뜰주유소는 평균 1819.8원이었다. 형태별로는 셀프 주유소 1820.8원, 비(非)셀프 주유소 1860.7원으로 약 40원가량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오늘 승자 결정

영암·강진·신안 일원에서 열리는 '2014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의 승자가 오늘(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프로기사 30여 명과 중국·중화 타이베이·싱가포르·태국 등 4개국 어린이 211명 및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낙연 전라도지사와 장만채 도교육감, 박치문 한국기원 부총재를 비롯한 김인 한국선수단장, 화쉐밍 중국선수단장, 오가와 도모코 일본선수단장, 린션시엔 중화타이베이 단장, 마쓰우라 고이치로 국제페어바둑협회장, 지역 출신 국수(國手)인 조훈현, 이세돌 9단 등이 참석했다.

모두 9억원 규모의 매머드급인 2014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한·중 단체바둑대항전'과 '국제 페어바둑대회', '국제 어린이바둑대축제의 세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9일과 10일 영암, 강진에 이어 11일 신안을 마지막으로 지역 바둑팬들에게 바둑의 묘미를 선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